

이청준의 「눈길」 연구

송 준 호 (우석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재생과 전환의 상징적 공간 - '길' |
| 2. 소멸과 탐색의 상징적 공간 - '집' |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을 대상으로 작중인물의 갈등과 관계변화 과정이 '집'과 '길'의 공간 모티브와 결합되는 양상을 해명한다.

'집'에서는 소멸과 재생의 이미지가 동시에 드러난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집'은 작중인물이 어린 시절에 살던 집과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나누어진다. 옛집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가족관계의 파탄을 상징한다. 현재의 집은 소멸의 공간 이미지를 띤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통해 파괴되었던 모자관계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그건 재생의 공간 모티브라고 볼 수 있다.

'길'은 이동의 속성을 띤 공간으로서 작중인물의 존재론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모티브다. '나'가 옛집을 찾아간 길은 탐색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냄으로써 주인공은 미성숙 단계에서 벗어나 성년의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길로서 '나'를 존재론적 전환으로 이끄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길을 따라 과거의 시간으로 떠난 '나'는 비로소 어머니와 화해의 단계에 이른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독자의 감각을 자극해서 의미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간의 연구는 작품을 깊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주제어 : 공간, 상징, 집, 길, 통과제의, 탐색구조

1. 머리말

삶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통해 지속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간적 존재지만 동시에 공간적 존재이기도 하다. 삶을 다루는 소설에서 시간과 공간은 작중인물이 사고하고, 다른 인물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다양하게 행동하는 일차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시간과 공간은 중심이 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은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로 소설의 의미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소설의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는 독자의 감각에 충격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공간은 작중인물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고뇌에서 비롯된 갖가지 행동 방식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공간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설 독서가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케스트너(J. Kestner)는 소설의 공간을 기하학적, 허구적, 해석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소설의 공간 연구는 작품 고유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의 의미 지평까지 확대하는 구실을 한다. 한 편의 소설을 고정된 플롯이나 주제 등에 한정해서 해석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소설의 공간에 대한 천착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¹⁾

작중인물이 소설 안에서 다른 인물과 관계를 맺고 사고하고 활동하는 구체적 공간은 크게 둘로 집약된다. 집과 길이다. ‘집’이 본질적으로 정체와 화합을 상징한다면, ‘길’은 이동을 통한 탐색과 삶의 전환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집은 작중의 주요인물들이 놓여 있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길은 지속적인 이동을 통한 작중인물의 인식 변화 내지는 삶의 존재론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 모티브로 기능한다.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의 공간적 배경인 ‘집’과 ‘길’도 그런 예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소설의 주요 공간 모티브인 ‘집’과 ‘길’이 「눈길」의 내적 구조와 의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작중인물 각자가 보여주는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과 의식의 전환 과정이 이 작품에서는 ‘집’과 ‘길’의 공간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소설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눈길」은 1977년 <문예중앙>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또 이 작품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도 적지 않다.²⁾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주인공 ‘나’가 휴가철을 맞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다니러 왔다가 어머니와 아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과정에서 모자간

1) J. Kestner, *The Spatiality of the Novel*, Detroit :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2)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화진, 「이청준 소설의 글쓰기 양상에 대한 검토」, 『반교어문학회지』, 반교어문학회, 2003.

권오룡,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청준론』, 심인행, 1991.

임금복, 「이청준 소설 연구 - 소설가가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1987.

마희정,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고향탐색의 과정」,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2004.

장윤호, 「이청준 소설 연구 - 고향 탐색 모티프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논문, 2000.

유경수, 「이청준의 ‘눈길’ 연구」, 『인문학연구』 제32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의 인간적이고 근원적인 화해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목처럼 「눈길」은 작중 주요인물들이 해묵은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길’이라는 공간 모티브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나’와 어머니가 오래 전에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묵었던 옛집과, 현재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으로 제시된 ‘집’ 또한 이 작품의 서사진개와 의미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공간 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2. 소멸과 탐색의 상징적 공간 - ‘집’

혈연에 얽힌 가족집단처럼 일정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 집이다. 그것은 존재의 이동에 따른 생의 전환을 상징하는 길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조된다. 집의 상징적 원리는 관계의 지속이다. 관계를 맺은 개인들은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나눈다. 그런 친교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가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진다.

집은 양면적 상징성을 띠기도 한다. 새롭게 맺은 관계의 지속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관계의 파탄이다. 남녀의 만남을 통한 부부관계의 성립과 가족의 발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공동체 형성 등은 전자의 경우다. 혈연의 토대인 부부관계의 소멸,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갖가지 불화, 혹은 여타의 공동체 분리 등은 후자의 전형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은 안전과 방호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혈연 집단의 내밀한 삶과, 그런 관계와 관련된 사랑과 갈등의 공간적인 상징이 되기도 한다. 집은 우주와 상응하는 중심으로서 이해되기도 하며, 여성의 감옥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은 어차피 집 속에 사는 존재이며 또 집이라는 사회적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집은 문학에 있

어서 중요한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³⁾

「눈길」의 집은 먼저 ‘여성의 감옥’으로서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그러한 상징성은 ‘다섯 칸 곁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으로 ‘나’의 어머니가 이십 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자주 회고할 만큼 ‘크고 넓었던 옛날 살던 집’과, 현재 늙은 어머니가 큰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들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었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다.⁴⁾

집안 전답과 선산뿐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팔아넘긴, ‘나’의 형은 어머니를 ‘여성의 감옥’에 가둔 장본인으로 근원적인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남의 것이 되어버린 집에 남겨진 어머니에게는 형의 식솔들까지 건사해야 하는 의무까지 더해진다. 어머니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 해체된 가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솔라르는 흐르는 모든 물은 어머니의 젖이라고 했다.⁵⁾ 어머니의 젖은 어린 자식을 키우는 생명수다. 생명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어머니는 불모의 이미지로서 메마른 대지를 상징한다. 어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집에서 옷케 하나로 옛날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3) 이재선, 「집[家]의 시간성과 공간성」, 『家와 家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49쪽.

4) 이청준, 「눈길」, 『한국현대소설문학대계』 53, 동아출판사, 1995, 404면. 이하 작품 인용은 각주를 생략하고 면수만 적음.

5) 가스통 바솔라르,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167쪽.

밥 한 끼 먹여서 떠나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로 인해 ‘옛날 살던 집’은 생명의 잉태와 양육이 불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옛집이 소멸과 죽음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그곳에서 ‘나’가 어머니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집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 버린 것이어서 ‘괴로운 잠자리’로만 인식될 뿐이다. 어머니만 홀로 남긴 채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나는 ‘나’의 모습은 그 집이 더 이상 공동체의 유지에 따른 생성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불모의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형이 남기고 간 식솔들과 어머니의 삶까지 감당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므로 옛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나’가 치른 것은 유년에서 성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종의 입사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안이 망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모두 원초적 모성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또한 그것은 자식에 대한 원초적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런 어머니에게서는 가산은 비록 하루아침에 파탄이 났어도 모자의 근원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옛집은 가족의 해체에 따른 소멸과 죽음의 상징적 공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관계의 재생과 회복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인 ‘나’가 찾은 옛집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집이었다. 하지만 ‘나’가 그 집에서 하룻밤만 묵고 다음날 새벽에 떠남으로써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당장 실현되지는 못한다. 근원적인 모자관계의 지속을 열망한 건 오로지 어머니 쪽이었다.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다. 하지만 집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후 적지 않은 세월을 두고 ‘나’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기까지 뒷바라지를 변변하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부끄러움과 자책감 때문에 어머니는 마음속에 깊은 한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옛집에서 보여준 소멸과 죽음의 상징성은 이 소설의 시간적 서사전개상 중심에 놓여 있는 현재의 그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까지 이십 년 가까이 이어져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는 자신을 낳아주었고, 어린 시절에 길러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어쩌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만 가족이 아닌 남을 흔히 가리켜 부르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가 오랜 세월을 두고 내면에 키워 온 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이다.

‘이번에는 좀 훌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마음먹고 왔으면서도 ‘나’는 당초의 계획이나 의도와 달리 일정을 앞당겨 다음날 집을 떠나겠다는 ‘매정스런 결단’을 어머니에게 전한다. ‘나’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금세 어디서 묵은 빗문서라도 불쑥 불겨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 때문임이 드러난다. 관청의 주도로 온 마을에 유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지붕개량사업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번듯하게 바꾸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노골적인 속내를 직접 확인한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서 빛이란 게 없었다. (395면)

‘나’는 가족, 특히 어머니로부터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으므로 어머니와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으므로 ‘노인’은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나 원망뿐 아니라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어머니 또한 방을 하나 더 늘리고 지붕도 새로 올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간

절한 속내를 우회적으로만 내비칠 뿐 오랜 세월 동안 내면에 키워온 죄책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기와를 새로 엮고 방을 더 내고 싶은 어머니의 바람은 모자간의 관계회복과 재생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집은 어머니가 ‘나’의 형수와 조카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는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이다. 그나마 형수와 조카들은 ‘맘마다 남의 집으로 잠자릴 얻어 다니는’ 형편이다. 좁은 집은 가족의 기초단위인 잠자리마저 원활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더구나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나’로 인해 모자관계라는 근원적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식마저 해체된 두 사람의 모습은 현재 머물고 있는 집을 죽음과 같은 어두운 동굴의 이미지로 만든다.

어머니에게 매정스런 태도를 보이는 ‘나’에게 ‘까닭 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눈길’을 보내는 아내의 모습은 그녀가 곧 ‘나’와 어머니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달리 아내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지난날의 일을 반복해서 물음으로써 ‘나’가 돌이키기조차 꺼리는 기억을 들추어내는 걸 ‘나’는 못마땅하면서도 선뜻 막지 못한다.

‘나’는 그걸 막는 대신 어머니와 아내가 나누는 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어머니와 아내가 방에 앉아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집 밖을 배회하면서 이야기 내용을 엿듣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러면서도 묵은 빚 문서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는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나’는 일찍 잠에 드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용에 따르면 이런 ‘나’는 여러 위험을 안고 있는 2차 사춘기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누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다.⁶⁾

‘나’의 바람과 달리 아내로 인해 노인의 이야기는 옷궤에 대한 것까지 이어진다. 그 옛날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는 이불 한 채와 함께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

6) C. G. Jung, *Psychological Reflec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143면.

있음이 분명한' 옷케는 '17,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줄곧 끌어안고 살아온 유일한 물건이다. 그건 또한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과거의 시간으로 '나'를 단숨에 끌고 가는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다.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는 '나'가 깜빡 잠이 든 한밤중에 이르러 그 옛날 새벽 눈길을 걸어 나를 읍내 차부까지 바래다 준 일까지 이어지는데 거기까지는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나'가 새벽에 읍내 차부에서 버스를 타고 떠난 뒤의 일까지로 계속된다. 그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떠올리는 걸 꺼려 온 장면이었다. 그 뒤의 이야기에 의해 어머니가 오랫동안 내면에 간직해 온 한이 비로소 드러나고 '나'는 어머니의 한에 접근해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짚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416면)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고 거리에 혼자 남아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러지면서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린다. '나'가 '잠이 든 척' 버티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한을 외면하고 살아온 데 대한 자식으로서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례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물은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몸과 마음의 정화(淨化)를 상징한다. '나'가 '눈꺼풀을 꼭꼭 눌러'가며 속으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간직해 왔던 '나'가 정화의 의식을 치르고 새롭게 거듭나는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심정적인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정화의 의식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이라는 점에서 집의 공간적 상징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멸과 죽음의 공간이 아니다.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나'가 잊고 지냈

거나 알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해 왔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서 모자간의 원초적 관계를 회복시켜 준 재생과 존재론적 전환의 공간인 것이다.

3. 재생과 전환의 상징적 공간 - ‘길’

이동의 속성을 띤 길은 삶의 전환을 상징한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동을 제외하면 인간은 특히 새로운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할 때 길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길이 작중인물들의 의식과 삶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모티브로 기능하는 것도 그런 까닭에 서라고 할 수 있다.

「눈길」의 공간적 배경인 길 또한 작중인물들이 보여주는 존재론적 전환의 모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이 소설의 길은 작중 주요인물의 삶의 전이과정에 구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물 각자의 의식과 상호간의 관계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길은 앞서 보았던 ‘집’의 공간 모티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K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형의 사나운 술버릇 때문에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으로 찾아간다. 세상살이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부족한 ‘나’로서는 집안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대신 K시와 집을 연결하는 길을 따라 탐색 공간에 스스로를 올려놓음으로써 ‘나’는 그간의 소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 다음 장면은 ‘나’의 탐색이 결국 깊은 좌절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비어진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라 말이나.”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404면)

공간적 배경으로서 길은 대부분의 소설에서 현실적인 것으로만 의미가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 소설의 ‘나’처럼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작중인물이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으레 통과제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지역을 지나 다른 곳을 향해 길을 따라 이동하는 인물은, 특히 ‘나’처럼 아직 미성년인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주술적이고 종교적으로 특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길을 움직임이 가능한 진행의 공간으로 보았을 때 인물이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 보여주게 되는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은 신화비평의 통과제의 구조와 같은 양상을 띤다.

‘나’가 옛집을 찾아간 것과 같은 탐색 여행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길의 이동을 통한 탐색의 과정에서 ‘나’가 맨 처음 목격한 것은 식구들의 행방마저 알 수 없는 ‘텅텅 비어진’ 집이다. ‘나’는 그런 빈 집에 선뜻 들어서지 못한 채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인다. ‘먼 친척간 누님’을 찾아가는 건 ‘나’가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나’를 나무라면서 집안으로 이끄는 어머니로 인해 그곳에서 끝날 것 같았던 ‘나’의 탐색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새벽에 ‘나’가 버리고 떠나야 했던 집에 남겨진 건 어머니 한 사람뿐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찾을 수 없어서 오래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집을 새 주인에게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는 동안 옷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세간을 찾아볼 수 없는 집안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게 된다. 그 하룻밤은 ‘나’가 미성숙한 단

계를 벗어나 성숙의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으로서 일종의 통과제의 의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

통과제의 혹은 통과의례는 본디 인류학적 개념이다. 이는 유년이나 사춘기에서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치르는 고통스런 의식을 가리킨다. 통과제의 의를 치르는 당사자는 언제나 일련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성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소설의 통과제의 구조는 분리, 전이, 결합의 순차적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⁷⁾ ‘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하룻밤의 통과제의 의식을 치른 ‘나’는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선다. 옛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집을 남의 손에 넘긴 형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를 향한 환멸을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집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어머니와 함께 차부가 있는 읍까지 걷는 ‘눈길’의 차가운 공기는 겨울의 계절 모티브와 결합되어 죽음의 이미지를 띤다. 또한 흰눈의 순백색 이미지는 하룻밤의 통과제의 의식을 치른 ‘나’가 성년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앞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 속의 ‘눈길’이 주는 이미지는 ‘나’와 ‘어머니’에게 각기 따로 작용한다. ‘나’에게 눈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쓰라린 추억일 뿐이다. 집안이 몰락해버려서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어머니에게 있어 눈길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혹독한 시련이면서 동시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근원적 사랑의 이미지를 띤다.

“그래 그 운전수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 이더냐. 차를 미쳐 세우지도 덜하고 덜크렁덜크렁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아그를 훌쩍 실어 담고 가버리는구나.” (414면)

‘나’를 눈 깜짝할 사이에 실어 담고 급하고 매정하게 길을 떠나게 한 운전

7) A.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University Press, 1966, 11면.

수는 신화 속 악마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원형 상징 가운데 원의 모양인 차 바퀴의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서양에서는 위험한 운명의 장난을 상징하고, 동양에서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죽음과 재생의 끈질긴 윤회를 상징한다.⁸⁾

그 새벽에 나를 신고 어머니 곁을 떠나게 만든 버스의 바퀴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끝없이 회전을 반복하는 원의 형상을 띤 버스의 바퀴는 원초적인 모자관계 파탄의 반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나'는 어머니를 거리에 홀로 남긴 채 새벽에 버스를 타고 K시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어머니와 본격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건 역설적으로 '나'가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통과 제의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⁹⁾ '나' 앞에 놓인 건 고단한 삶의 연속이다. 나는 탐색의 주인공으로서 옛집에서의 탐색을 통한 삶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나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때 이른 성년식을 치렀다. 그 시절에 '나'가 옛집을 찾아갔던 길이 가능성의 확인을 위한 탐색의 길이었다면 새벽에 버스를 타고 떠난 길은 '나'에게 험난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확인해주었다.

그 새벽에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길을 떠난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연결된 길을 스스로 차단한 채 살아왔다. 지금 '나'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온 것은 '좀 흥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서일 뿐이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로서의 존재를 걸으려는 끊임없이 부정하면서도 '나'의 내면에서까지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자신의 무능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는 심한 자책감과, 아들이 남긴 식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겹쳐 고통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 P.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itiation*, Indiaa Universitr Press, 1962, 126면.

9) M. Eliade,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 New York : Harper & Row, 1958, 7면.

보편적으로 존재론적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이야기를 엿듣는 동안에도 ‘나’는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나’가 어머니와의 사이에 놓인 길을 오랜 세월을 두고 차단해 왔던 것처럼 어머니와 아내가 과거를 함께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나’는 현재와 과거를 잇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어머니와 관련된 과거의 그 어떤 기억들까지도 ‘나’는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삶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 ‘나’를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려 새로운 탐색의 길로 인도하는 건 ‘나’의 아내다.

정서적 거리의 측면에서 아내는 ‘나’와 어머니의 중간쯤에 놓여 있다. 과거의 시간을 직접 공유한 적이 없으면서도 아내는 시어머니와 관련되어 ‘나’가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의 실체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같은 여자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는 시어머니의 내면에 자리한 한과 간절한 원망을 깊이 이해할 줄도 안다.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떠나겠다는 ‘나’의 ‘매정스런 결단’을 못마땅해 하는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응어려져 있는 한을 일부러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걸 통해 아내는 시어머니의 한을 정화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그건 ‘나’의 심리적 정화과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의 시간으로 한걸음에 달려가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는 낮부터 밤까지 이어진다. ‘나’는 ‘잠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깜빡 잠을 청했지만 ‘어렵풋한 선잠기 속에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를 결국 듣고 만다. 그리고 어머니의 회고는 오랜 세월을 두고 ‘나’가 무의식 속에 아픈게 숨겨두었던 장면에서 이른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나.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굵이굽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뉘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굵이굽이 외지 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아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414면)

어머니가 새벽에 차부에서 자신을 떠나보내고 혼자 돌아가는 시간과 장면
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나’가 그곳으로 가는 내면의 길을 일부러 차단하거나 부정해 왔을 뿐이다. 자신을 떠나보낸 뒤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집으로 혼자 발걸음을 돌렸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비록 당시의 ‘나’가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다 해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한은, 아들을 배웅해주고 혼자 돌아오는 눈길에 선명한 모자의 나란한 발자국을 보며 흘린 어머니의 눈물로 집약된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로서의 원초적 그리움, 옛 집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고갯마루에서 동네로 들어서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망연히 동네를 내려다보았던 것이다.

나를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혼자 집으로 돌아갔던 눈길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눈길의 순백 이미지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원초적 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들의 발자국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모성도 전해주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식하는 절망의 시간이다. ‘내 자석아!’를 속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어머니는 젖이 흐르지 않는 땅의 이미지다.

탐색 여행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¹⁰⁾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있는 동안 ‘나’는 과거의 시간으

10) Burrow, David J, *Myths and Symbols in Indian Art and Civi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6, 135면.

로 아내가 연결해 놓은 길을 따라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부정해 왔던 장면을 떠올림으로써 오랜 세월 무의식 속에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찾는다. 아내가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로 자신을 흔들어 깨우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대신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겉으로 흘리지 않고 ‘눈꺼풀을 꺾꺾 눌러 참으면서’ 속으로만 눈물을 흘림으로써 ‘나’는 스스로 정화의 의식을 치른다.

4. 맺음말

소설 속 인물의 사고와 행동의 공간적 배경인 ‘집’과 ‘길’이 작품의 내적 구조와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가 어머니와 오랜 세월을 두고 겪어 온 외적이고 내적인 갈등이 두 가지 공간 모티브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해명해 보았던 것이다. 그 결과 어머니의 근원적인 모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면서 살아왔던 ‘나’가 모자간의 인간적 화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집’과 ‘길’의 두 가지 공간 모티프를 통해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집’의 경우는 소멸과 생성 혹은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집’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남의 손에 넘어가버린 옛날의 집과, ‘나’의 형이 남긴 식솔과 함께 노모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집으로 나누어진다.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된 집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가족관계의 파탄을 상징한다. 망해버린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옷কে 하나를 갖춰두고 어린 아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어머니를 통해 옛날 집은 동시에 생성과 재생의 열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공간 모티브임이 드러난다. 또 서사전개의 중심 공간인, 현재 어머니가 형수의 식솔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집은 주인공인 ‘나’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죽음과 같은 공간 이미지를 띤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엿듣는 과정에서 ‘나’가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며 거부해 왔던 모자관계의 원형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생의 의미를 띤 공간 모티브라고 볼 수 있다.

‘길’은 이동의 속성을 띤 것으로서 이 소설의 경우 주인공인 ‘나’의 존재론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나’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혼자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찾아간 길은 일종의 탐색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옛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미성숙의 단계에서 성년의 인식을 갖게 되는 입사식을 치른다. 다음날 새벽에 K시로 돌아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시오리나’ 되는 장터 차부까지’ 동행했던 눈 덮인 산길은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 이미지와 결합되어 ‘나’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길로서 ‘나’를 존재론적 전환으로 이끄는 구실을 한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과정에서 그 길을 따라 과거의 시간으로 향한다. 그리고 ‘나’를 떠나보낸 뒤의 어머니 모습을 새롭게 확인함으로써 ‘나’는 어머니를 부정해 왔던 자신을 반성하고 비로소 화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설의 배경으로 제시된 공간은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소설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공간 모티브는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천착은 작품 해석의 다양성과 깊이를 담보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룡,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청준론』, 심인행, 1991.
- 마희정,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고향탐색」, 『개신어문연구』 제21집, 개신어문학회, 2004.
- 유경수, 「이청준의 <눈길> 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32권 2호, 2005.
- 이재선, 「집[家]의 시간성과 공간성」, 『家와 家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이청준, 「눈길」, 『한국현대소설문학대계』 53, 동아출판사, 1995.
- 이화진, 「이청준 소설의 글쓰기 양상에 대한 검토」, 『반교어문학회지』, 반교어문학회, 2003.
- 임금복, 「이청준 소설 연구 - 소설가가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1987.
- 장윤희, 「이청준 소설 연구 - 고향 탐색 모티프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논문, 2000.
- 홍용기, 「이청준 소설의 공간성 연구 : 섬 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J. Kestner, *The Spatiality of the Novel*, Detroit :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8.
-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 A.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University Press, 1966.
- Burrow, David J, *Myths and Symbols in Indian Art and Civi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6.
- C. G. Jung, *Psychological Reflec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M. Eliade,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 New York : Harper & Row, 1958.
- 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Harcourts, Brace & World, 1959.
- P.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itiation*, Indiaa Universitr Press, 1962.

【Abstracts】

A Study on 「Snowy Road(눈길)」
by Lee Cheong-Jun

Song Jun-ho

This study focuses on initiation structure of contemporary Korean novel. Especially initiation structure is one of rites of passage in myths. In order to clarify, contemporary Korean novel's initiation structure, this paper analyzed the various symbols employed in Lee Cheong Jun's 「Snowy Road(눈길)」.

As symbolism in story has a close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archetype, I accommodated archetypal criticism to analyze the works in the paper. So this paper started by viewing the concept of symbolism of house and road. House and road of 「Snowy Road(눈길)」 symbolized death and rebirth of characters.

Key words : house, road, initiation, rites of passage, searching structure, symbol.

이 논문은 2017년 6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